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동계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매력

얼마 전 국내 굴지의 렌터카 업체 사장과 만남 기회가 있었다. 그로부터 렌터카 비즈니스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렌터카 하면 제주도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는 “제주도에는 렌터카 회사가 100여 개가 넘고 차량이 3만대를 웃도는 과당 경쟁 상태”라며 재미있는 전망을 했다. “동계 올림픽을 지켜봤더니 강원도가 비즈니스 적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강릉 평창 정선 등 대관령 일대 강원도 영동 지역의 도로 시설이 좋아졌고,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KTX가 교통혁신을 일으켰다. 북한의 김여정 특사를 비롯한 올림픽 방문객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구경하고 순식간에 서울에 있는 숙소로 돌아오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바라볼 때 강릉 일대의 교통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런 접근성으로 강원도 지역 곳곳의 특성이 더욱 부각되게 마련이다. 또한 관광객이나 일반 방문객이 일정한 시간에 강원도에 머물며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깊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렌터카 사장의 눈에는, 서울 사

람들이 굳이 자동차를 몰고 먼 길을 달려가 동해안을 여행할 필요가 없다. KTX를 타고 강릉에 내려 렌터카를 이용하여 관광을 하다가 저녁 때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여행이 뜰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

이런 여행 패턴이 많아지면 KTX는 강릉 숙박업소엔 별로 반가운 존재가 아닐 것도 같다. 올림픽기간 중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면 KTX가 영동 지역을 죽일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8일 패럴림픽이 폐막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개막한 제23회 동계올림픽의 긴축제가 마무리됐다. 나는 아쉽게도 평창 올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구경할 기회가 없었고, 몇 년간 강원도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그저 텔레비전을 통해 개·폐막식과 흥미로운 경기를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달라진 그 지역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나의 눈에는 올림픽 경기도 재미있게 보였지만, 그런 추억거리보다는 두 가지 희망적인 미래가 떠올랐다. 하나는 북한 특사단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상징하는 한

반도 평화의 물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림픽 이후 피어날 강원도의 매력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매일매일 언론을 장악하는 이슈가 되고 있으니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민의 문화적 정서와 산업에 줄 귀중한 자극은 생각보다 오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마치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국인에게 끼친 정신적 영향이 컸듯이 이번 평창 올림픽은 눈과 산의 고장으로서 강원도민에 주는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동계 올림픽을 열었던 강원도민으로서 시민 의식이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긍지가 자극 자체 만으로 뭔가 미흡하다. 이런 정신적 자극이 산업에 연결되어 시민의 경제생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사람, 비즈니스, 돈, 지식, 정보가 강원도로 흐르는 컨베이어벨트가 되도록 KTX를 잘 활용해야 한다.

교육은 매력적인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 발전에 교육기관은 매우 유용한 요소다. 강릉은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 강릉에는 4개의대학이 있다. 인구 20여만 명의 도시치고 이렇게 대학이 많은 곳도 드물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대학에 다니기 위해 강릉을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다.

몇 년 전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다. 터미널 주변 상점들이 부산했다. 운전사가 설명해줬다. 강릉시의 서민 경제는 경포대를 찾아오는 서울 관광객이 아니라 강릉의 대학에 다니는 서울출신 대학생들이 주 유산한다는 얘기였다. 학생들이 금요일이면 서울 집으로 가기 위해, 일요일이면 서울서 돌아오면서 터미널 주변 상가는 붐빈다는 것이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보였다. 대학 밀집도가 높으니 대학생의 소비생활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그렇지만 대학은 대학생의 소비생활이 남기는 낙수효과로만 그 존재를 평가할 수 없다. 대학이 많다는 것은 교수진, 대학직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이루는 교육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교육도시로서 강릉지역은 훌륭한 지식산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교육서비스의 고품격화다. 특화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서울 등 다른 대도시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게 될 것이며, 이런 파급효과가 지속되면 강원도의 산업발전과 회사 유치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블랙아이스’ 특단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겨울철 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빙 취약지점을 확대하고 사전 예보 및 열선 등 시설물 설치 확대 등 종합대책을 강구 중이라니 기대를 걸어 본다.

국토교통부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도로 살얼을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19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결빙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취약구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도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결빙 취약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현재 결빙 취약구간은 급커브, 응달, 터널 주변 등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나 상주~영천도로는 거의 직선구간이어서 취약구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

다. 기존 결빙 취약구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습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큰 구간은 취약구간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추가 결빙 취약구간이 나오면 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도로의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도로 전광판(VMS)을 통해 안내하는 예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시설 등 도로 관리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진행됐으나, 국토부는 예보가 나오기 전에 도로 관측을 통해 사전 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토부는 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지에 제설용 염수를 살포하는 자동염수분사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바닥 열선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블랙아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기술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일교율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p>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p> <p>호남신문</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고국 (062) 224-5800</p> <p>팩스 (062) 222-5547</p>	<p>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p> <p>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p> <p>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p> <p>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p> <p>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크리스마스트리, 화재예방에 신경 써야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12월도 절반이 지나 새해를 앞두고 있다. 이달은 올 한 해 동안 기쁘고 보람되었던 일, 슬프고 아쉬웠던 일 등을 되돌아보고 새해 소망을 다짐해 보는 시기로서 성탄절과 연 말연시는 모든 이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특히, 대형 할인점이나 문구점

등에서는 가정에 설치하기 위해 성탄 트리용품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자주 띄고 야간에 교회에서 트리 불빛을 자주 볼 수 있어 더욱 연말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겨울철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전구로 인한 화재가 종종 발생하는데, 장시간 켜 둔 전구들이 표

면 열이 높아짐과 동시에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발화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전선이 낡은 장식용 전구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집을 비우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 때, 항상 크리스마스트리의 플러그를 빼 놓으며, 장식용 전구 플러그를 여러

개 동시에 꽂아 놓는 것은 전기 합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트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아이들이 트리주위에 있을 때,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전선이나 조명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이들의 손이 닿을 수 없게 성냥과 라이터 등을 높은 곳에 두고, 잠긴 캐비닛에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